

【 종합 】

“北, 테러지원국 해제 팬 24시간 내 냉각탑 폭파”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보도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 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안에 불능화대상인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주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측은 자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될 경우 곧바로 이 같이 행동하기로 재확인했다고 익명의 외교관들을 인용, 전했다. 신문은 이러한 계획은 미국 관리들이 추진한 것이라면, 그 배경은 북한이 핵보유 야망을 포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실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전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에서는 증기가 분출되고 있으며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이러한 모습은 이 시설이 원자로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또 신문은 북한 관리들이 19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영변 원자로 가동기록 수천권을 미국 측에 내놓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손 매코믹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논평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정부, 해외 학자·노벨상수상자 국내 대학 초빙 적극 지원

정부가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외 거주 학자, 노벨상 수상자들의 국내 대학 초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올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대학원 대상인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 학부 대상인 ‘우수인력양성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간 총 1천650억원 규모로 5년 동안 지원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은 교과부가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이다. 실제 국내 대학들이 외국 교수를 초빙하려 할 때 국내외 외국 대학 간 연봉수준 차이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과부는 또 학부과정의 국내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총 500억원을 ‘우수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이 지원받은 사업비를 학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사업비 총액을 일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목포신항 기아차 선적 재개

기아차 광주공장이 오는 6일부터 목포항을 통해 수출을 재개하게 됐다. 기아차와 기아차 하역 위탁업체인 대한통운·세방·동방 등 3개사는 재정부부를 포함해 수출차량 5천600대를 동시에 야적할 수 있는 10만7천250㎡(3만2천500평)의 공간을 확보, 6일부터 수출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양측은 오는 9일 야적장 사용 등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달 15일부터 목포 신항만(주)이 선적료 인상을 요구하며 차량선적을 거부하자 그동안 광양·광택·군산 등 다른 지역 항만을 통해 부산 수출해왔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2013 U대회 광주에서 첫 프레젠테이션 무얼 담았나

“광주, 개최 여건 최적” 강조

최첨단 경기장·친환경 선수촌... 경기운영 준비 상황 직접 시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은 이번 광주 현지 실사 과정에서 광주시로 부터 3차례의 공식 프레젠테이션과 광주 인프라 소개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T)을 받았다. 주제는 인프라와 스포츠시설, 선수촌, 숙박, 의료서비스, 안전, 미디어, 스포츠조직 및 경험 등 17개 항목이다. PT는 광주와 개최 여건을 한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여서 시는 ‘명품’ PT를 통해 광주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작에 공을 들이는 한편 수차례 사전 시뮬레이션을 가졌다. 시는 2일 진행된 첫 PT에서 U대회 주 경기장으로 활용될 월드컵 경기장을 중심으로 16개 대학 스포츠 시설, 선수촌, 호

텔 등 주요 인프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모형을 활용, 광주의 개최 여건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여기에는 대회 개최 시기가 9월1일부터 11일까지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1차 공식 PT에서는 대회 개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로 실무위원들에게 신뢰를 심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모두 3천99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U대회 유치에 확정되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3일 열리는 스포츠 시설, 선수촌, 숙박 등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광주도시공사 2천400가구 규모로 1만2천20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대회 선수촌을 짓는 계획과 수영장 등 각종 경기장 신축 계획 등도 소개됐다. 선수촌이 친환경·최첨단을 지향하는 ‘에코 하이테크 플랜’으로 신축된다는 점도 부각된다. 특히 대회기간 동안 대학생들에게 국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전통 문화 공간 등 다국적 공간 조성 계획은 물론 화상전화, DVD 등 첨단 정보 통신시설을 갖춘다는 점도 강조했다. 4일 열리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의료서비스, 도핑컨트롤, 안전, 미디어, 정보기술 등 완벽한 경기운영 준비상황을 직접 시연한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현지 실사 이틀째인 2일 오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축소 제작된 광주시 모형을 보며 주요 인프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영화 통폐합 우선... 축소 우려 커

■李 대통령, 시도지사의 혁신도시 언급 안팎 사실상 재검토 지시... 시도지사 “원안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 “폐기나 축소 계획은 없지만 일정 부분 보완 및 수정은 불가피하다”면서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회의에서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며 “중앙집권적으로 일괄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기업 통폐합 및 민영화 문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정치 논

리에 입각한 접근은 배제하겠다”며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해야 할 일로 민영화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기업 이전 후 민영화 추진’ 등을 요구해온 지방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해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것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언급은 더 큰 폭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어서 당초 계획에서 얼마나 변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

준영 전남지사는 “혁신도시 폐기나 무조건 축소 계획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차별화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방에 대해서만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타시·도에 비해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오히려 차별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내놓은 혁신도시의 기능별 통폐합 가능성도 커 혁신도시로서의 기능 ‘상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도 ‘선 이전 후 민영화’를 주장해 온 지방의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 설

李대통령 U대회 유치지원 약속 기대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일 “청와대에 열린 전국 시·도지사회의에서 U대회를 광주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실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3일째를 맞은 광주 실사는 거의 완벽하다. 각종 환영행사와 프레젠테이션 등 실무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시민들의 유치 열기도 뜨겁다. 아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U대회 유치 기념 시민축제는 3만여명이 참석, 실사단에 “감동”을 안겨 주었다. 실사단의 반응도 만족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단은 5·18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

의 이미지에 공감했다고 한다. 세계의 대학생들이 우정과 평화, 화합을 다지는 FISU 정신과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일부 실무위원들은 월드컵 4강 신화를 탄생시켰던 광주월드컵경기장 모형을 보고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완벽 수준인 실사준비와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기는 실사단에 깊은 인상을 남겨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광주시와 유치위원회는 마지막까지 실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도 필수적이다. 과제는 정부와 재계의 지원이다. 스포터 버그 실사단장은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를 치르려면 재계의 든든한 후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다짐한 만큼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U대회 유치에 성공해야 할 것이다.

지방 ‘운명’ 걸린 혁신도시 결국 수정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전국 16개 시·도지사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도시는 지역별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각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게 효과적인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혁신도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또한 “민영화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건설과 상관없이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영화된 공기업은 지방이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 건설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혁신도시에 대한 이 같은 대통령의 시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도시 건설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여론수렴 과정이나 구체적인 대안없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혁신도시를 재검토기로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태도다.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불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비수도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등 국론 분열에 따른 국력 낭비만 불러올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혁신도시 건설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오히려 혁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순리다. 특히 공공기관 통폐합은 혁신도시 이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정부는 차질없는 혁신도시 추진만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0 F1 대회준비 탄력

SK건설·농협·신한은행 등 대회 운영법인 투자협약

F1(포뮬러원) 한국그랑프리 대회 운영법인인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KAVO)에 국내 대형 건설사와 제1금융권이 참여키로 해 F1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SK건설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이 이날 전남도와 투자협약 체결식을 갖고 KAVO에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새로운 투자자가 된 이들의 지분은 SK건설 25%, 농협중앙회·신한은행·광주은행 15% 등 모두 40%에 이르며 공공부문 투자자로서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43%, F1 대회 유치를 기여한 전문 프로모터 회사인 엠브릿지홀딩스(MBH)가 17%의 지분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지분 비율 조정으로 그동안 특

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대기업과 제1금융권 참여로 KAVO의 공신력과 재무건전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또 이번 지분구조 개편과 더불어 KAVO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주축이 돼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돼 대회 준비에 탄력이 붙게 됐다. KAVO는 이번 지분구조 개편 과정에서 약 600억원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한 데 이어 PF를 통해 3천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조달, 경주장 건설 비용 등 F1 대회 개최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 내일 밤미

박준영(사진) 전남지사가 4일부터 14일까지 투자유치 및 우호교류차 미국을 방문한다. 박 지사는 5~6일 첫 순방지인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유엔환경대학원 유치를 제안하며, 물류와 부동산 산개발 등 잠재 투자자 7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상담을 실시한다.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양광 업체를 상대로 투자 유치 상담을 하고, 알프레드 대학을 방문해 총장 등과 면담을 갖고 분교 설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아지도 방법은 많다. (An advertisement for a book or magazine with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and a dog.)

“광우병 실상 정확히 알려야”

李 대통령-강재섭 대표 정례회동... “사회 불안 증폭시켜선 안돼”

정운천 농림·식고기 피담 관련 담화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따른 광우병 우려와 관련,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뿐 아니라 당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오후 담화문을 통해 광우병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6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광우병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임시국회 현안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쇠고기 광우병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 대표가 밝혔다. 한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교통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음에도 일부에서 확실한 근거없이 제기하는 안정성 문제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The Kwangju Ilbo. 光州日報.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